

# 정치권, 종합부동산세 개편 '뜨거운 감자' 급부상

조국 "민주 2중대 아냐...강력 대응" 이재명 '세부담 완화' 시사에 반발 세계 정책 등 민주당과 차별성 강조 국힘, 세계 개편논의 신속 착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부세 개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반면, 야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

표·최고위원 후보자 2차 온라인 합동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우리 당에 대해 '민주당 2중대' 또는 민생 정책이 없는 검찰 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민주당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경쟁할 부분은 또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성으로 '세계' 분야를 꼽았다.

그는 "민생 복지 강화도 지역 균형 발전도 모두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폐지가 민

주당의 당론과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세는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을 납부하고, 대부분이 비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쓰인다.

그런 만큼, 중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비수도권에 큰 타격이 간다는 얘기도 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중부세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중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차기 대선 때 중도층 공략책으로 정책적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중부세와 금투세 등 세계 개편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중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여당이 중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맞섰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간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대화가 되려면 국민의힘이 세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다른 궤도에서 여야가 (세계) 논의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후보의 '중부세 근본적 재검토' 발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론'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말한 중부세·금투세 부분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윤 대통령 "한미, 명실상부 핵기반 동맹"

국무회의서 나토 정상회의 설명 "어떤 북핵 위협에도 대응 태세"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최

26일까지 업무보고 청취·안전 처리 김태균 의장 "실천하는 의정 최선"

전남도의회가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 관련사진 7면

이번 임시회는 전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된 후 열린 첫 임시회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책임한 정부 정책에 10년마다 찾아오는 한우 파동의 심각성 인지 촉구 건의안' 및 기타 안전 처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와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러북군사밀착규탄'이 중점 논의돼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성명에 명시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호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특히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박형대 의원이 '농어민수당 인상 및 제도 개선'을, 김정이 의원은 '전 도민 무상 교통토론(J-Pass) 지급을 통한 전남도민 이동 자율성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박원종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 연안 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울곧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의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 野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회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뉴스스

## 민주 최고위원 후보들, '소통채널' 선거운동 분주

###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등 활용

8·18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와 야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으로 향하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당원들의 주목도가 높은 소통 채널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 전 대표 네이버 팬카페 '재명 이네 마을'에 글을 남기는 일이 잦아졌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15일 공명선거서약을 마친 후 팬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집권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예비경선대회와 공명선거서약식, 국회 등지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찍은 4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강선우 후보와 민형배 후보는 예비경선이 끝나자마자 "당원 덕분에 최고위원 후보가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강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 지독하게, 더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했고, 민 후보는 "이재명을 지키고 정치 검찰과 싸우겠다"며 친명 선명성 경쟁에 뛰어 들었다.

민 후보는 지난 12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도 동행했다.

한준호·전현희·김병주 의원 등도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최고위원 출마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지키기' 경쟁에 가세했다.

당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보 계열 유튜브 방송으로도 후보들의 발길이 쏠리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구독자 163만명)를 비롯해 '새날'(100만명), '이동형TV'(65만명), '박시영TV'(56만명) 등이 대표적인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다.

이들 채널에선 최고위원 경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어 당달아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강민수, '12·12 거사-광주사태' 표기 비판에 '진땀'

### "옳지 않은 표현, 진심 사과"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자는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로 표기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당시 언론·논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

당 의원의 석사 논문 표기 관련 지적에,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또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19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거사라는 것이 소신이나 는 지적에 "옳지 않은 표현이 맞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광주가 지역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지금 30년 전을 되돌아 생각하면 그때 정말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논문으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을 아프게 하고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더 조심하고 특히나 우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의심받는 일 없도록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